

## 19세기 안의삼동(安義三洞) 동천(洞天)의 경관구조 해석

### An Analysis on the Landscape Structure of Anuisamdong–Dongcheon in the 19th Century

김 동 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Kim dong-hyu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요약

본 연구는 안의삼동을 대상으로 19세기 관찬지리지와 관련 문헌에서 추출한 동천의 경관구조를 살펴본 결과 화림동 5개소, 심진동 9개소, 원학동 17개소가 확인되었으며, 동천 내 주요지점들은 각각 경구집합형, 경점연속형, 복합형 등의 경관구조 분포를 지니고 동시에 동천의 집합체로서 세거지와 격리, 주머니 공간 형성을 통해 선계로서의 장소성을 부여하였다.

## I. 서론

전통사회의 마지막 부흥기인 19세기는 그간 축적된 유람기, 유산기 등을 통해 명승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선현들의 동천 유람을 답습하는 행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동천은 빼어난 산수경관이 연속으로 전개되는 명승의 집합체로 볼 수 있으며 특히, 화림동(花林洞), 심진동(尋眞洞), 원학동(猿鶴洞)으로 구성된 안의삼동은 예로부터 영호남 지방 최고의 명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수송대, 용추폭포, 거연정, 용암정만이 명승으로 지정되는 등 각 경관요소가 점적으로 산재해 있어 선조들이 동천을 향유하던 내재적 의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 연구 또한 동천 관점에서의 전반적인 경관 분석은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발간된 관찬지리지와 관련 문헌에 나타나는 동천의 경관구조 해석을 통해 안의삼동 동천의 경관구조 재현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과 안의삼동의 명승적 가치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19세기 발간된 관찬지리지인 『안의현읍지(安義縣邑誌, 1832)』, 『안의읍지(安義邑誌, 1899)』를 중심으로 관련 문헌에서 나타나는 동천 경관구조를 살펴보았다. 안의삼동의 주요지점 도출은 관찬지리지에 수록된 지점 35개소를 대상으로 화림동, 심진동, 원학동으로 구분하였으며, 읍치 내 지점 4개소는 심산유곡의 경관을 즐기거나 하는 동천의 의미보다는 행정 목적 및 문루의 역할을 하는 누정으로 경관구조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31개소의 지점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경관구조의 해석은 각 동천이 개별적으로 지니는 주요지점의 분포구조와 세 개의 동천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집합의

미구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1. 관찬지리지 누정·형승 편에 기록된 안의삼동의 주요지점

구분		화림동	심진동	원학동	읍치	계
안의현 읍지	누정	2	-	7	4	13
	형승	5	8	16	2	31
안의 읍지	누정	3	-	6	4	13
	형승	2	3	4	-	9

\*현재 명승으로 지정된 주요지점은 화림동 1개소(누정), 심진동 1개소(형승), 원학동 2개소(형승, 누정 각 1개소)에 해당함.

## III. 결과 및 고찰

### 1. 안의삼동의 주요 지점 도출

관찬지리지에 나타난 화림동의 주요 지점은 형승 3개소, 누정 2개소 등 총 5개소로 화림동은 계류와 함께 펼쳐진 너럭바위와 정자가 어우러진 명소로서 예로부터 8담8정(八潭八亭)으로 불렸던 곳이었다. 이에 따라 정자를 중심으로 공간구역을 살펴보면 거연정(居然亭)과 군자정 권역, 동호정 권역, 농월정 권역으로 세분된다. 군자정과 거연정은 각각 영귀대, 방수천이라는 각자를 새김으로써 일대의 암반지형을 정자 권역으로 포함시켰으며 동호정은 악기를 연주하는 금적암, 술을 마시며 즐기던 장소인 차일암을 포함하는 정자로 너럭바위에 각자를 새김으로써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월연암 또한 농월정 권역에 포함되는 암반으로 이동항의 『방장유록(方丈遊錄, 1790)』에 의하면 ‘암반 위를 흐르는 못과 주변의 큰 바위가 병풍처럼 에워싸는 경관을 마치 선계에 들어온 듯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심진동에 위치한 주요지점으로는 총 9개소로 모두 형승에 해당하는 자연 요소이다. 권섭(權燮, 1671-1759)의 『유행록(遊行錄, 1741)』에 의하면 ‘장수사 앞에 탄금대,

풍류암, 채호암, 절 위의 설옥대를 보았다[3].’라는 기록이 나타나는데 이를 토대로 지리지에 수록된 주요지점을 살펴보면 풍류암과 탄금대, 취적암은 장수사의 입구에 위치하며, 암반에 각각의 명칭이 새겨져 있었다. 노진(盧禎, 1518-1578)의 『유심진동기(遊尋眞洞記, 1726)』에 의하면[4] 장수사에 진입하기 전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경승지가 바로 채호암이었으며, 이는 채호암과 1리를 간격으로 위치하고 있는 용음퇴, 용추폭, 설옥암 등의 위치가 장수사 뒤편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한다.

원학동의 주요지점은 형승 10개소, 누정 7개소 총 17개소로 안의삼동 동천 중 가장 많은 요소들이 관찬지리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선조들은 안의삼동을 유람하며 원학동의 경관을 세 동천 중 으뜸으로 꼽고 있다. 원학동 내 주요지점은 용암정과 수승대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수승대는 거북 모양의 거대한 암반지형과 구연이 형성하는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구연서원의 문루인 관수루와 맞은편 요수정 등의 조영이 확인되었으며, 용암정 또한 불고대와 학담으로 구성된 자연경관 일대에 정자가 조성된 사례에 해당한다. 한편, 강선대, 진동암, 송대, 수승대, 척수대, 지우암 등은 자연요소로서 그 형상이 기이하여 그 자체만으로 지역 내 주요 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 2. 안의삼동의 동천 경관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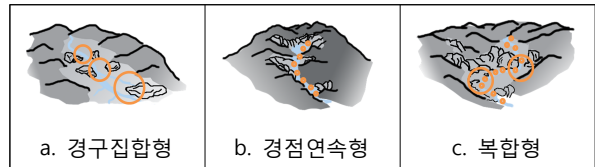
### 2.1 안의삼동 동천의 개별 분포 구조

선술한 주요 지점의 위치비정을 통한 분포 양상을 살펴본 결과(그림 1 참조) 화림동의 경우 정자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영역이 동천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 내 집약적으로 분포되는 경구집합형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그림 1-a 참조). 송병선의 『유안음산수기(遊安陰山水記, 1899)』에 의하면 화림동을 두루 돌아본 이후 ‘맑은 샘과 흰 바위 꼭꼭마다 정자를 지을만하다[5].’고 평한 바 있는데, 이는 화림동의 경관 체계가 정자를 포함한 암반과 계류, 주변의 산림에 위요된 별도의 장소성을 지닌 경구들이 군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진동 내 주요 지점들은 이동향의 안의삼동 유람 여정에서도 ‘굽이굽이마다 물과 돌이 비단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 끊임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심진동의 연속적인 경관의 전개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각 지점들이 개별적으로는 계류에 인접하여 계곡 주변의 지형이나 지세가 독특한 경관을 지니며 전반적으로 계곡을 따라 선형으로 분포하는 경점연속형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그림 1-b 참조).

원학동은 위천의 중·하류 일대에 주요지점들이 배치되어 있어 화림동이나 심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지니며, 개방적 조망경관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입지특성에 따라 화림동에서 나타나는 경구의 조합과 계류에 인접하여 주요지점들이 연속적으로 배치되는 심진동의 분포 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그림 1-c 참조). 수승대와 용암정 일대는 세거지와 인접한 지점으로 정자와 산수경관이 어우러진 경구로서의 특성이 위천의 하류에 위치한 척수대까지의 권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선대에서 강선대까지 이어지는 주요 지점들은 월성계곡을 따라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그림 1. 안의삼동 동천의 경관 구조 모식도

### 2.2 안의삼동 동천의 집합 의미 구조

안의삼동에 해당하는 세 동천은 거리상으로 읍치나 세거지와 멀리 떨어진 자연적 격리 혹은 거리상으로는 인접해 있으나 수림지의 조성이나 산자락에 의해 시각적으로 격리되었다. 화림동과 심진동은 각각 남강과 용추계곡 등 물길을 따라 읍치와 연결되어 있으나 거리상으로 격리된 유형에 해당하며, 원학동은 위천면 마을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나 선경산에서 뻗어 나온 산자락과 주변의 수림대로 인해 시각적 격리가 이루어진 유형으로 분류된다.

한편, 관찬지리지 상에 화림동과 심진동, 원학동은 공히 동천의 입구에 각각의 명칭이 새겨져 있음을 밝히고 있다. 화림동은 농월정이 동천의 입구에 해당하는데, 농월정 후면의 황석산 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소로를 통해 농월정으로의 진입이 가능함에 따라 농월정과 전면의 월연암이 더욱 극적인 경관을 자아내게 한다. 심진동 또한 광풍루에서 심원정을 따라 가는 좁은 길 옆 작은 바위에 심진동이라는 각자가 새겨져 있다는 유심진동기의 기록을 통해 계곡 지형에 둘러진 동천의 경관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학동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곳은 진동암으로 좁은 계곡지형을 통해 원학동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동천의 종점인 송대는 주변 지형에 의해 금원산과 기백산에 완벽히 둘러진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경관의 전개는 외부와는 격리된 구조를 지니며, 좁은 입구와 이를 지나서 마주하게 되는 개방적 경관은 주변 산수에 의해 둘러진 호리병 혹은 주머니 형태의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지상 낙원이나 무릉도원 등 세속과는 격리된 선계의 장소로 인식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 참고 문헌 ■

- [1] 이혁중, 최기수 “전통조경공간에서 나타난 동천의 조영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8권 2호, pp.9-22, 2010.
- [2] 문화콘텐츠닷컴, 방장유록. www.culturecontent.com
- [3] 정병호, 삼천에 구백리 머나먼 여행길, pp.302, 문경새재 박물관, 문경, 2008.
- [4] 이종묵 “심진동 장수사와 옥계 노진”, 남명학연구, 제26권, pp.405-436, 2008.
- [5] 한국고전종합 DB. 유안음산수기 db.itkc.or.kr